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BETA) 회장



전국의 방송기술인 및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저물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戊'는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戌'이 의미하는 개띠는 인간과 친밀하며 활동적인 동물의 대표로서, 2018년 황금 개띠 해에는 사회가 밝고 활기차게 번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만큼이나 올 한해 방송기술인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지혜롭게 목표하신 바를 꼭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8년은 미디어 생태계가 더욱 급변하는 시점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산업간 실질적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에 더욱 적극적인 변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마존, 구글, SK텔레콤, 네이버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AI 스피커를 필두로 미래 IoT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해 있으며, 2017년 11월 기준으로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점유율은 72.8%에 달하고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강자 Netflix가 '옥자' 등의 한국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내에서의 입지를 점차 강화하는 등 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단행된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국내 통신망 업체와 네이버/카카오/poq 등의 동영상 업체 간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단하기 어려운 기술변화와 이종 산업간 경쟁 확장은 기존 방송미디어 업체들에 대응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 아날로그 TV → 디지털 TV로 변화되는 동안 방송·미디어 산업은 매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AI/VR/AR/IoT 등 신규 융합형 기술들의 발달과 새로이 시작된 UHD 방송 등 새로운 변화는 긍정적 성장을 가져오리라 기대되며, 기술이 주도하는 이런 변화의 시기는 우리 방송기술인들에게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고 신규 미디어 환경을 주도해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UHD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2018년이 되길 기원하며

이제 곧 초고화질(UHD)로 제작/송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 최초로 UHD로 송출되는 만큼 한국 방송기술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과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방송기술에 대한 질의와 기술교류에 대한 문의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UHD 정착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국산 장비 업체에 대한 기술 발전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요소에 대한 인식 부족인 듯, 정부 기관은 본인들이 계획한 일정 준수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고 수혜자인 가전사는 제대로 된 UHD 콘텐츠도 없이 UHD TV 판매로 이익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UHD 산업을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상파든 유료방송이든 경계를 떠나 관련 정부 부처나 가전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그 수혜는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UHD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UHD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류를 개척해온 지상파가 UHD 시대에서도 한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수신료 현실화를 비롯해 가전사의 일부 이익 분담, 광고 규제 완화,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신시스템 설치 법제화 등 직접 수신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로 차별 없는 무료 보편적 미디어 사회 구현 노력도 요구됩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올 한해에도 UHD 등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엔지니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HD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비롯해 'KOBA와 KOC 컨퍼런스', 미래 방송 환경을 다양한 각도로 고찰하는 '월드미디어 포럼', 예비 방송기술인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NAB와 EBU와 같은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연합회원사의 단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 방송과기술'을 더 내실화하고 '방송기술저널'을 통해 다양한 방송기술 정책을 제시해 협회원들의 역량과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방송기술교육원'을 통해 UHD 방송제작기술과 송신 시스템, 미래 선진화 미디어기술 등의 교육 과정을 실시할 것이며 더 많은 협회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과 해외 교육을 늘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작년처럼 저와 연합회 집행부, 사무처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견마지로의 수고를 마다치 않고 열심히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협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엔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2. 한국전파진흥협회와 MOU 체결
3. KOBA 2017 개최
4. 제25-2대 대의원대회 개최
5.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MOU 체결
6. KOC 및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인사드립니다. ‘방송과기술’ 신임 편집장 최권용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이제 기억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걱정해주는 나라, 국민을 위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리고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무술년 황금개의 해인 2018년은 모두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최권용 방송과기술 신임 편집장



2018년은 월간 ‘방송과기술’ 창간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1987년 11월 14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설립 후 회원 간의 소식과 정보 교류를 위해 발행물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8년 7월, ‘방송기술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습니다.

1992년 5월, ‘방송기술’을 ‘방송’이라는 큰 틀로 확장하고, 그 안에 융화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방송과기술’로 제호를 변경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며 한편으로 ‘발전’,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나이입니다. 지금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진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송과기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즘 너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연말 회식 때 1차 회식 후 바로 4차로 가야 한다고 했던 일화가 생각납니다. IoT, AI, 로봇, AR/VR, 5G, 빅데이터, 코딩... 요즘 저희가 너무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요, UHD는 그 무게감이 오히려 묻히는 듯 느껴집니다.

방송기술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0년 전에도 우리는 변화를 외쳤습니다. “변화만이 살길이다”라고.

사실 10년 전보다 더 이른 DTV 전송방식 논쟁이 있었던 2002~2003년에도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사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해답은 콘텐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방송과기술’,
끊임없는 배움과
소통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며 플랫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미생과 도깨비, JTBC 뉴스 등을 보며 콘텐츠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한 우리의 큰 방향은 콘텐츠와 플랫폼, 양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이용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과기술'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지능',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사회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신지식이 넘쳐흐르고 있고, 쫓아가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지식조차도 우리는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담보되어 있지 않은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의 고민을 공유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는 지식의 세기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0년 초·중반대에 출생한 분들과 직장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는 '고인 군번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저 또한 실제 군 생활 중에서도 정말 풀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장이라는 사병의 최고 계급을 달았음에도 내무반의 서열은 하위였던 기억입니다.

'고인 군번'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에게 지시하며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말. 100세 시대와 살벌한 청년 취업난 그리고 눈부신 기술발전이 우리에게 '고인 군번'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고인 군번'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 현역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년기(80세 이상)의 나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최소한 그 시기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것' 바로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졌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협력이 필요하고 결국은 소통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대처해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인·기술인의 소통, 조직의 지위에 따른 역할 간의 소통, 기술과 사람의 소통,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통, 국가와 국민의 소통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송과기술'은 위에 언급한 가치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가는 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공대/과학기술인은 역사에 무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관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100세 시대와 60세 정년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탄탄한 협동조합을 소개함으로써 6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사 간 소통의 터전이 될 것이고, 전문 지식과 최신 기술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독자와 기술인이 양질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독자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책의 판형과 디자인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방송기술 전문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구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과기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